

중소기업연구 40년의 역사: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기업의 전략적 경영

서원석* · 이상명**

국문요약(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중소기업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통해 중소기업연구 40년의 역사적 흐름을 조명하고 미래 중소기업연구의 방향을 고찰해보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중소기업정책 및 중소기업의 전략적 경영 측면에 집중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해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979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연구에서 다룬 중소기업정책 및 중소기업의 전략적 경영 부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자 등을 기준으로 시기별,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 1,056편의 연구논문 중 중소기업정책 및 전략적 경영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은 전체 연구 중 약 14%, 11%의 비율을 보였다. 둘째, 연구주제 측면에서 중소기업정책 부문에서는 자금 및 창업·벤처 관련 정책 연구의 비중이 높았고, 전략적 경영 부문에서는 국제화 전략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셋째, 1980년대까지는 질적연구가 더 큰 비중을 보였으나, 1990년대 이후 양적연구의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해 이후로는 질적연구보다 양적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넷째, 지난 40년간 중소기업정책 및 전략적 경영 부문에서 연구논문을 가장 활발히 발표한 기관은 한양대학교, 경북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이었으며 연구소의 연구 참여는 다소 미흡했다.

“중소기업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정책 연구와 전략적 경영에 대한 연구 간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방법 측면에서 보다 다양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연구소의 학회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주제어]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의 전략적 경영, 중소기업연구, 중소기업연구 40년의 역사, 중소기업연구 동향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ys5950@hanyang.ac.kr, 주저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sanglee@hanyang.ac.kr, 교신저자)

A 40-year History of the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Policy and Strategic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es

Won-Seok Seo* · Sang-Myung Lee**

Abstract: Marking the 4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this paper was carried out to shed light on the historical trend of 40 year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research through the papers published in the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future small and medium business research. In particular, we will focus on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policies and strategic management aspects of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es to analyze the contents of published papers related to the subject and contribute to finding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 order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policies and strategic management sectors of small and medium venture companies covered in the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from 1979 to 2019, the analysis was divided by time and item based on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s, researchers, etc., and the primary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ut of a total of 1,056 research papers, research papers on small and medium venture enterprise policy and strategic management showed a ratio of about 14% and 11% of the total research. Second, in terms of research subjects, the proportion of policy research on funds and start-ups and ventures was high in the field of small and medium venture enterprise policy, and the research on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was carried out the most in the area of strategic management. Third, qualitative research

* Ph.d Candidate, Business School, Hanyang University (ys5950@hanyang.ac.kr, First Author)

** Professor of Business School, Hanyang University (sanglee@hanyang.ac.kr, Corresponding Author)

was more prominent until the 1980s, but the proportion of quantitative research began to increase after the 1990s, and since then, quantitative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more than qualitative research. Fourth, over the past 40 years, Hanyang Univers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nkuk University, etc. were the institutions that presented research papers most actively in the areas of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policy and strategic management, and the research institute's participation was somewhat insufficient.

The main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link between research on policy research and strategic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 venture companies in terms of research subject matter. Second, more diversity should be pursued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Thir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rate of public and private research institutes related to small and medium venture enterprises in academic societies.

[Keywords]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Policy, Strategic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40 Years of the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Trend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Research

I. 서론

한국중소기업학회는 1978년 5월 27일 창립총회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2018년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한국중소기업학회는 중소기업의 이론과 실제에 관련한 연구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중소기업연구”와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학회지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온 것이다. 중소기업연구는 1979년 4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1,056편의 연구논문을 발간했다.

초대 회장인 황병준은 창간사에서 “이 학회지는 중소기업의 이론적 연구를 위하여는 물론이고, 정책을 입안하는 행정가, 실무에 종사하는 경영학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큰 영광이라 할 것이다”라고 학회지 발간의 취지를 밝혔다. 즉 중소기업연구 학회지는 중소기업이론의 개발과 보급, 중소기업 정책수립과 중소기업 경영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원리와 개념, 기법의 개발과 논의, 전달 등을 목적으로 창간된 것이다(용세중, 1999).

지난 40여년 동안 중소기업연구는 중소·벤처기업이 당면한 시대적인 도전에 대응하며 중소기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학회지로 자리매김 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연구의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측면에서 그간 이루어진 연구동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연구자들은 학술연구를 통해 사회적으로 언급되는 정책이슈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거나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내기도 하며, 기존 학술연구에서 논의되는 이슈를 바

탕으로 정책을 설계하기도 한다(정효정, 2018). 특히 중소기업 관련 분야는 산업사회와 정책 변화에 기인하여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이용희·홍광표·박수홍, 2015; 김병윤·정철우·김길선, 2011).

또한, 이병헌·김영배(1999)는 중소기업의 진화 패턴을 고려할 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기업의 전략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이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영 환경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정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79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총 1,056편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관련 학술연구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연구 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나라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변화 속에 중소기업연구에서는 정책 관련 연구가 어떠한 흐름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정리해보고, 이러한 정책 흐름의 변화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되어 왔는지 탐색해보았다.

이러한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연구”가 걸어온 지난 40년간의 학술적 위상을 밝히고, 더불어 향후 중소기업의 정책 및 전략적 경영 연구방향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

2.1.1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흐름

중소기업은 국가의 경제 및 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해외 연구결과에서도 중소기업들이 투자 규모에 비해 고용 창출과 기술혁신에 있어서도 기여도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Pavitt, 1988; Rothwell, 1988).

우리나라의 경우,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단기간의 경제적 고도성장 달

성을 위해 선택된 대기업 위주의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자원배분의 결과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장지호, 2009). 그러나 60년대부터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반복되었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보호와 육성책이 시행되었다(이병현·장지호, 2006).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박준경, 1994; 이윤보·노화봉, 2006; 이의영, 2003)가 수행되었으며, 기존 연구들에서는 정책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정책이 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와 같이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의 정책결정은 필연적으로 대통령이 제시한 담론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이중수,

〈표 1〉 정권 시기별 중소기업 정책(오철호, 2012)

시기	구 분	주요 특징
제5~6공화국 (1980~1992)	보호 육성기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고유 업종 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시기
문민정부 (1993~1997)	자율과 경쟁을 통한 고도화기	세계화 및 개방화의 시대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 또한 기존의 보호, 육성 위주의 정책에서 자율과 경쟁을 통한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전담조직인 중기청을 신설했던 시기
국민의 정부 (1998~2002)	벤처창업 촉진 및 경쟁력 강화기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던 시기
참여 정부 (2003~2008)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기	중소기업 역할의 강화를 위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 경영전반에 대한 지원체계 혁신을 추진했던 시기
이명박 정부 (2008~2013)	상생기	친기업 정책을 기조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코자 했던 시기
박근혜 정부 (2013~2017)	창조경제 및 경제민주화 실천기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강조하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추진했던 시기
문재인 정부 (2018~2019)	중소기업 중심경제 전환기	경제 구조와 체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친 중소기업 정책 추진

2008).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권에서도 이견이 없으나, 어떤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동시에 육성해야 하는지는 각 시기별로 상이하고 이는 최종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이 제시한 담론에 의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장지호, 2009). 중소기업연구가 창간된 1979년 이후의 정권 시기별 중소기업 정책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한편, 장지호(2009)는 중소기업정책을 시대적 담론변화에 따라 10년 주기로 구분하기도 하였는데, 1970년대를 중화학공업 편중 보완의 시기, 1980년대를 장기계획과 선별 육성으로의 전환 시기, 1990년대를 자율과 경쟁 담론의 시기, 2000년대를 기술혁신과 균형지원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70년대는 보호와 함께 중화학공업화로 인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이 시작되었고, 80년대는 중소기업 의무대출, 고유업종제도 등 보호와 지원을 병립하는 제도들이 도입되었으며, 90년대 후반 산업정책으로서의 IT산업 중심의 벤처육성이 본격화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원 등 기반조성 정책들이 등장하였다(장지호, 2009).

2.1.2 중소기업정책의 분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는 지난 30여 년간 행정학, 정책학, 경제학, 경영학 분야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용세중, 1999). 기존 연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특정 지원 제도나 프로그램의 효과성,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단편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인데, 많은 연구들이 정책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대

안들이 중소기업의 혁신활동과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이병헌·장지호, 2006).

기존의 중소기업정책 관련 연구들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약 10개 내외의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주로 자금, 인력, 기술, 창업, 유통 등 각 기능별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분류하였다.

이병헌·장지호(2006)는 정부 각 부처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거의 대부분은 경영활동의 일부 기능을 지원하는 기능별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①자금지원, ②창업지원, ③기술지원, ④영업 및 마케팅 지원, ⑤생산성 향상 및 구조조정, ⑥정보화 지원, ⑦인력지원, ⑧외부연계 및 기업 간 협력 지원의 8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오철호·신열·이민창(2012)은 중소기업 지원예산 구조상의 각 정부 부처별 수행기능을 토대로 중소기업지원정책을 분류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정책을 ①창업벤처, ②기술, ③인력, ④자금, ⑤수출판로, ⑥협력 및 동반성장, ⑦지식서비스, ⑧소상공인 재래시장, ⑨기타의 9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이재현·고승희(2009)는 “중소기업 지원 실태와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중소기업종합정보서비스(SPi)에 등록된 지원사업 리스트를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분류하였는데, <표 2>와 같이 ①용자·투자, ②보증·보험, ③기술, ④특허·인증, ⑤판로·수출, ⑥인력, ⑦창업·벤처, ⑧정보화·컨설팅, ⑨자영업·유통, ⑩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10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 지원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2) 중소기업 지원정책(이재현·고승희, 2009)

부문	지원내용
융자·투자	시설자금, 운전자금, 원자재자금, 기타자금
보증·보험	신용보증, 기술보증, 신용보험, 수출보험, 각종 공제사업
기술	연구개발·사업화, 기술이전·거래, 기술인력·장비, 기술지도
특허·인증	특허, 인증, 표준
판로·수출	공공구매·조달, 시장정보·상담, 국내외 전시·박람회, 마케팅지원, 시장개척단
인력	인력정보·채용, 인재개발·양성, 유공자 선정, 근무환경 개선
창업·벤처	창업자금, 창업보육, 벤처인증, 투자, 입지(공장설립)
정보화·컨설팅	컨설팅, 교육·정보제공, 정보화 구축
자영업·유통	소상공인 자금, 유통, 재래시장, 여성, 장애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정거래, 기술, 판로, 인력

이를 종합해 본 결과, 기존 연구들에서 분류하고 있는 중소기업정책은 각 연구자가 택한 분류기준에 의하여 다소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정부 부처별·지원사업별 예산 및 지원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정책을 분류하고 있어 자금, 기술, 창업·벤처, 인력, 마케팅·유통, 정보화, 국제화, 기업 간 상생협력 등을 공통적인 중소기업정책 부문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기존 연구들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체계 및 제도에 대한 몇 가지 한계점을 공통되게 지적하고 있다.

첫째, 각 부처별 중소기업지원은 해당 부처 주도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욕구 충족 차

원에서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집행 차원에 고착되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부처별 경쟁과 중복의 문제가 대두된다(오철호 외, 2012).

둘째, 공급자 중심의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의 선정과 지원 시기의 부적합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이병헌·장지호, 2006).

2.2 중소기업의 전략적 경영

과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능력의 축적이 미약한 상황에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저가품을 대량생산하여 성장해 왔다(이병헌·김영배, 1999). 그러나 박기석(2014)은 이러한 형태의 전략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저가경 공세로 인하여 더 이상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우위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과거에 비해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략 선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기술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되면서 벤처기업을 비롯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거는 기대는 더욱 커진다(이병헌·김영배, 1999).

전략 유형에 대한 분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여러 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역적(개념적) 방법과 주로 특정 산업 내에서 경쟁 기업들 간 전략행태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귀납적(실증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역적(Typology) 방법에 의한 분류로는 대표적으

로 Miles and Snow(1978)의 방어형(Defender), 공격형(Prospector), 분석형(Analyzer), 반응형(Reactor)과 Porter(1980)의 원가주도(Cost Leadership) 전략, 차별화(Differentiation) 전략, 집중화(Focus) 전략 등이 있다. 귀납적(Taxonomy) 방법에 의한 분류로는 Miller and Friesen(1983)의 틈새시장형(Niche Marketer), 제품혁신형(Product Innovator), 마케팅차별화형(Marketing Differentiation), 원가우위형(Cost Leader)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의 전략유형 구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이 적용되었는데, 해외의 주요 연구결과들은 중소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변수, 자원역량, 조직 및 환경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략 유형을 제시하였다(Bantel, 1998; Birley and Westhead, 1990; Gartner, Mitchell and Vesper, 1989; Mcdougall and Robinson, 1990; Westhead, 1990). 국내 중소기업의 전략유형에 대한 연구도 해외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역적 유형연구와 귀납적 유형연구로 구분되어 진행되어 왔다. 연역적 유형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이나 혁신능력을 전략유형의 분류의 중요한 변수로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사후적 전략유형연구는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거나, 여러 산업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이병헌·박상문·손병호, 2009).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들의 전략유형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특정업종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략유형을 도출하는 접근방법을 취함으로써 소규모 표본과 업종 특수성으로 인해 도출된 전략유형들이 다른 업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이병헌 외, 2009). 또한 전략유형의 분류기준의 선택에 있어서 연구자들마다

일관성 결여나 핵심 분류기준 변수들의 이론적 토대가 미흡함은 전략유형 연구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허문구 1990; 이병헌·김영배, 2000).

2.3 중소기업 연구동향 분석 연구

2.3.1 중소기업 연구동향 분석 논문

중소기업 관련 분야는 산업사회와 정책 변화에 기인하여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이용희 외, 2015; 김병윤 외, 2011).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학술 연구와 정책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한 연구들은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권기석·정서화·이찬구, 2018). 학술연구와 정책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 또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민지·양희순·정재은(2014)은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약 20년 간 KCI에 등재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국제화 연구동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정효정(2018)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을 중심으로 학술연구의 동향 및 정책과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내 중소기업 관련 연구의 학술적, 정책적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나아가 학술연구와 정책 간의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에서의 성과를 활용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관련 연구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했다.

2.3.2 '중소기업연구' 문헌고찰 연구

중소기업연구 학회지는 창간 후 40년간 꾸준히 발전하며,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발굴하고 학문적인 위상을 높여왔다. 또한 중소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모델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창립 목적을 달성해왔다. 그러나 그간 수행된 연구논문의 성과를 관리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종합적인 분석은 다소 미흡하다.

창간호에서 황일청(1979)은 해방 후부터 1978년까지 약 30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중소기업연구를 분석하고, 그 발전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해 특징을 요약하였다. 1965년까지를 관심양성화기, 1975년까지를 문제인식기, 1979년까지를 관련성장조기로 보았으며, 중소기업 연구의 문제점으로 관련분야의 연구인구 부족, 연구내용을 뒷받침할 이론적 연구의 부족, 연구분야 및 방법론 측면의 다양성 부족 등을 강조했다(황일청, 1979).

이후 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용세중(1999)은 1979년부터 1997년까지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총 26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기존의 선행연구(황일청, 1979)와 비교하여, 과거 20년간 학회 이제 발표된 중소기업연구 논문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커다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용세중, 1999).

그러나 이후 중소기업연구에 대한 문헌고찰(literature review)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소기업연구의 학술연구에 대한 기여와 성과 및 한계점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등 연구방향의 개선을 모색해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1979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전체 연구논문 중 본 연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정책과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분야로 연구대상을 한정해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관련 연구의 세부 연구분야별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용세중(1999)은 1979년부터 1997년까지 20년간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총 26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연구의 한계점으로 발전의 정도, 문제의 파악, 발전 방향의 제시가 부족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부분야별 연구의 필요성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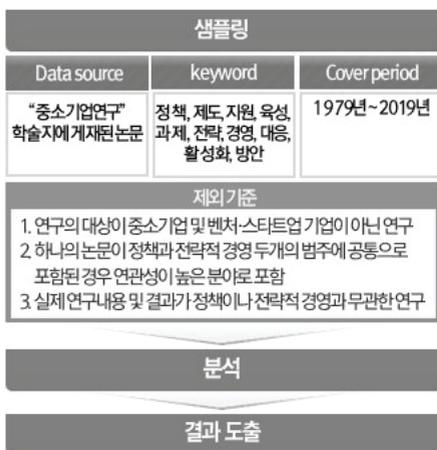
둘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은 기업의 전략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며, 그 연계성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정책과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분야의 연구동향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 및 발전 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논문의 선정을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하였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에 대한 키워드를 각각 선정한 후 해당 키워드가 논문 제목 및 키워드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논문들을 1차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중소벤처기업정책 관련 키워드로는 ‘정책’, ‘제도’, ‘지원’, ‘육성’, ‘과제’를 사용하였고,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에 대해서는 ‘전략’, ‘경영’, ‘대응’, ‘활성화’, ‘방안’을 키워드로 사용하였다. 키워드를 활용한 1차 추출과정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정책 분야에서 152편,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분야에서 123편의 논문을 추출했다.

이 중에서 연구의 대상이 중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아닌 연구는 제외하였다. 또한, 하나의 연구논문이 정책과 전략적 경영 두 개의 범주에 공통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연구내용 및 결과에 따라 연관성이 더 높은 부문에 포함하였다. 또한, 키워드를 통해 1차 대상에 선정되었으나, 실제 연구내용 및 결과가 중소벤처기업정책이나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과 무관한 연구일 경우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정책 분야 144편,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분야 112편으로 총 256편의 연구논문이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1〉 연구대상 선정 및 연구절차

3.2 연구 분류 기준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선정된 256편(중소벤처기업정책 144편,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112편)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자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는 관련 연구들을 큰 주제별로 구분한 후 다시 각 주제에 대해 하위 주제로 분류하는 Werner(2002)의 논문고찰 방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정책과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을 대분류로 구분했으며, 기존 연구(이병헌·장지호, 2006; 이재현·고승희, 2009; 오철호 외, 2012)들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8개 정책 분류에 소상공인과 기타 분류를 추가하여 <표 3>과 같이 구분하였다.

〈표 3〉 연구주제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책 / 전략적 경영	자금	융자·투자, 보증·보험 등
	기술	기술개발, 특허, 인증 등
	창업·벤처	창업·벤처 지원 등
	인력	인력정보, 채용, 인재개발·양성 등
	마케팅·유통	마케팅, 유통, 영업 등
	정보화	정보화 구축, 컨설팅, 정보화 교육 등
	국제화	수출 지원, 공공구매·조달, 국내외 전시·박람회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술, 판로, 전략적 제휴, 공정거래 등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등
	기타	기타 정책 및 전략적 경영 전반에 관한 내용

연구방법은 질적연구, 양적연구, 혼합연구로 분류하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표 4>와 같이 세부 분류기준을 정하였다.

<표 4> 연구방법 분류

연구방법	자료수집방법
질적연구	사례분석
	문헌연구
	인터뷰
양적연구	설문조사
	2차자료
	실험연구
	설문조사+2차자료
혼합연구	인터뷰+설문조사/2차자료
	사례분석+설문조사/2차자료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우선 논문의 제1저자와 소속기관, 그리고 각 논문들의 총 저자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별 연구논문 수,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의 각 연구분야별 주요 연구자, 연구자별 논문 편 수 등을 파악하였다.

3.3 분석결과의 시각화

지난 40년간 중소기업연구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분야의 연구 동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인 ‘SPOTFIRE’ 및 ‘R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한 데이터를 이미지로 시각화하기 위해서 트리맵 등 각종 그래프와 차트를 표현하였다.

IV. 분석결과

4.1 시기별 연구 동향

1979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총 1,056편의 연구논문 중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을 주제로 다룬 연구논문은 각각 144편과 112편으로 전체 연구논문 중 약 14%, 11%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표 5> 시기별 연구 동향

시기	연구 분야	
	중소벤처기업 정책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1979~1989	23편(19%)	22편(19%)
1990~1999	19편(9%)	33편(16%)
2000~2009	51편(12%)	39편(9%)
2010~2019	51편(17%)	18편(6%)
합계	144편(14%)	112편(11%)

<표 5>와 같이 시기별로 살펴보면, 학회 설립 초기라고 할 수 있는 1979~1989년 사이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을 주제로 한 연구가 전체 연구논문 중 각각 19% 비율을 보이며 활발하게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하게 수행되어 2000년대 이후에는 2000~2009년 사이에 51편, 2010년~2019년 사이에 51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반면,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을 주제로 한 연구는 비율적인 측면에서 1979~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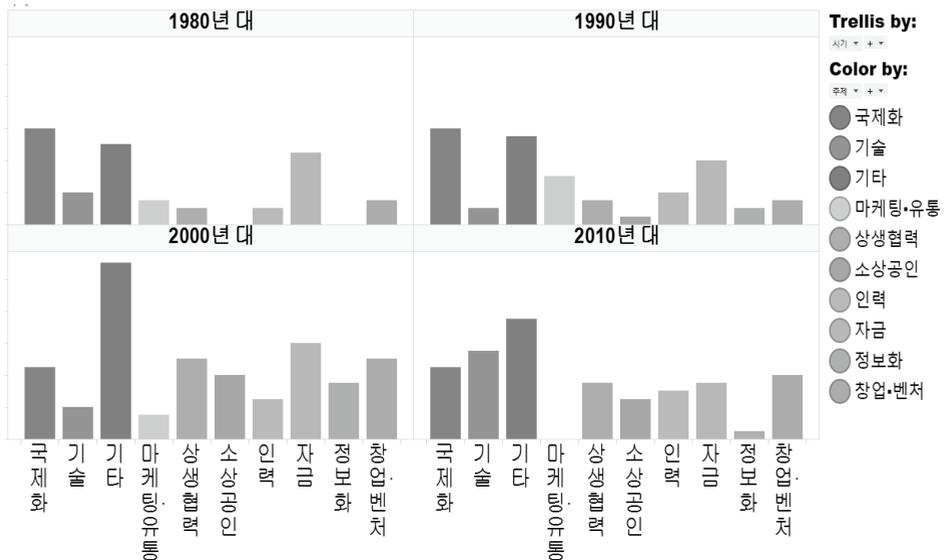
4.2 연구주제

〈표 6〉 연구주제별 연구논문 수

주제	연구 분야	
	중소벤처기업 정책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자금	32편(22%)	4편(4%)
기술	11편(8%)	10편(9%)
창업·벤처	16편(11%)	8편(7%)
인력	12편(8%)	5편(4%)
마케팅·유통	2편(1%)	10편(9%)
정보화	3편(2%)	7편(6%)
국제화	8편(6%)	34편(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12편(8%)	10편(9%)
소상공인	14편(10%)	-
기타 정책 및 전략적 경영 전반	34편(24%)	24편(21%)
합계	144편	112편

1979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연구논문 중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부문에서 연구된 논문들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표 6>과 같다. 정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 제안 성격의 연구가 24%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그 뒤를 이어 중소기업의 자금 정책에 대한 연구가 약 22%로 비중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관련된 연구가 30%로 가장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전략적 경영 전반에 걸친 연구가 21%로 그 뒤를 이었다.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과 관련한 연구에서 시기별로 연구주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2000년대 이후 기술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각 연구주제별로 시기에 따른 변동폭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시기별 연구주제 변화



〈그림 3〉 연구주제 분포도

<그림 3>은 중소기업정책과 중소기업의 전략적 경영 각 연구 분야별로 발표된 연구논문의 연구주제를 보다 직관적으로 분석해보기 위해 트리맵 차트로 구현하였다.

1979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총 1,056편의 연구논문 중 중소기업정책 관련 연구가 14%, 중소기업의 전략적 경영을 다룬 연구가 11%로 정책 관련 연구가 중소기업의 전략적 경영을 주제로 한 연구보다 좀 더 많았다.

정책과 전략적 경영 각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정책 연구 측면에서는 자금,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협력 순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국제화, 정보화, 마케팅·유통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가장 작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의 전략적 경영과 관련한 연구 측면에서는 국제화, 기술, 마케팅·유통 순으로 많은 연구

들이 수행되었으며, 창업·벤처, 인력, 자금 등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했다.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주제로 한 연구는 정책과 전략적 경영 두 부문 모두에서 작은 비율을 보였다.

연구주제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중소기업정책과 중소기업의 전략적 경영 각 부문별로 수행된 연구 주제가 크게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정책 측면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진 자금, 창업·벤처 등에 대한 연구는 전략적 경영 측면에서는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반면에 정책 측면에서 다소 부족했던 국제화, 기술, 마케팅·유통 관련 연구들이 전략적 경영 측면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소기업 관련 분야는 정책과 학술연구 간의 연계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특이성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4.3 연구방법

1979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부문에서 연구된 논문들을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방법별로 분류하면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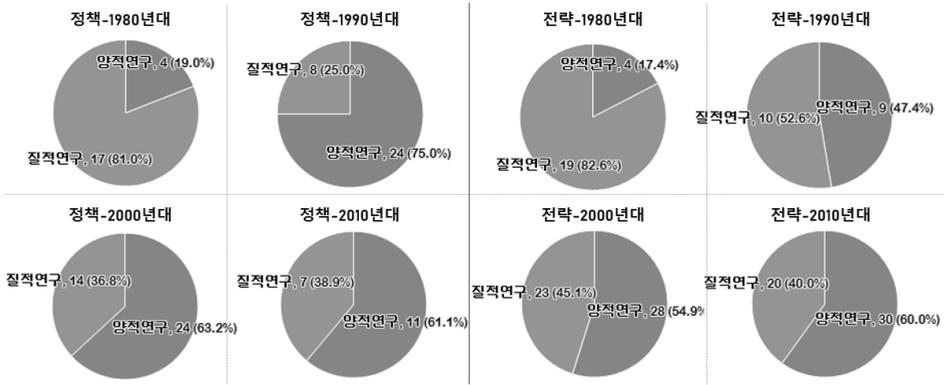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정책 관련 연구에 있어 연구방법으로는 질적연구가 50%, 양적연구가 49%로 거의 동등한 비율을 보였으며,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관련 연구에서는 질적연구가 41%, 양적연구가 56%로 연구방법론에 있어 양적연구방법이 좀 더 많이 활용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의 전략적 경영과 관련된 요인들을 연구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정책 관련 연구에서는 정책 제안 등을 위한 이론적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비교적 질적

연구 비율이 높았다. 이외에도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병행하여 혼합연구를 수행한 연구도 4편이 있었다.

시기별로 연구방법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정책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학회 설립 초기인 1980년대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질적연구가 양적연구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양적연구를 채택한 연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이후로도 질적연구에 비해 양적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관련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인다. 1980년대에는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한 논문이 전체 논문의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양적연구를 수행한 연구논문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표 7>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방법별 연구논문 수

연구방법	자료수집방법	연구 분야	
		중소벤처기업 정책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질적연구	사례분석	18편(13%)	24편(21%)
	문헌연구	53편(37%)	22편(20%)
	인터뷰	1편(1%)	-
소계		72편(50%)	46편(41%)
양적연구	설문조사	32편(22%)	50편(45%)
	2차자료	38편(26%)	11편(10%)
	실험연구	-	1편(1%)
	설문조사+2차자료	1편(1%)	1편(1%)
소계		71편(49%)	63편(56%)
혼합연구	인터뷰+설문조사/2차자료	-	2편(2%)
	사례분석+설문조사/2차자료	1편(1%)	1편(1%)
소계		1편(1%)	3편(3%)
합계		144편	112편



〈그림 4〉 시기별 연구방법 변화

방법론이 점차 고도화되고 다양화됨에 기인한 것이다.

<그림 5>는 중소기업정책과 중소기업의 전략적 경영 각 연구 분야별로 발표된 연구논문의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방법의 분석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정책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비율이 거의 동등했으며, 질적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한 자료수집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

다. 또한 양적연구에서는 2차자료와 설문 조사를 활용한 비율이 비슷하였다.

전략적 경영 관련 연구들에서는 질적연구에 비해 양적연구가 좀 더 많이 이루어졌는데, 양적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질적연구에 있어서도 정책 관련 연구들과 비교해 사례 분석을 통한 자료수집 비율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방법 분포도

4.4 연구자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학에 비해 공공 및 민간 연구소의 학회 참여도는 다소 저조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 주요 연구기관별 연구논문 수

연구기관	연구 분야	
	중소벤처기업 정책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한양대	10편	5편
경북대	4편	9편
건국대	9편	2편
서울여대	10편	-
아주대	4편	5편
고려대	3편	4편
서강대	-	7편

1979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연구논문 중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을 가장 활발히 발표한 기관은 <표 8>과 같다.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대학은 한양대학교로 중소벤처기업정책 분야 10편,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분야에서 5편을 발표해 총 15편을 발표하였다. 그 뒤를 이어 경북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에서 1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들 대학의 특징은 중소기업 연구 학회에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수들이 재직하고 있어 관련 연구가 활성화 되었거나,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아주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대학을 제외한 기관 중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각각 3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연구소가 적지

〈표 9〉 주요 연구자

연구자	연구 분야	
	중소벤처기업 정책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이운보	6편	2편
이종욱	8편	-
박춘엽	5편	-
이장우	1편	4편
이장호	-	5편
최용호	1편	4편

<표 9>는 중소기업연구에 중소벤처기업 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을 주제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이다. 건국대학교 이운보 교수와 서울여자대학교의 이종욱 교수가 8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이운보 교수는 2005년 중소기업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 뒤를 이어 박춘엽, 이장우, 이장호, 최용호 교수가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표 10〉 논문편수별 연구자 수

논문편수	연구자(명)	
	중소벤처기업 정책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4편 이상	4명(3%)	3명(3%)
2편 ~ 3편	9명(8%)	14명(16%)
1편 이하	102명(89%)	69명(80%)
합계	115명	8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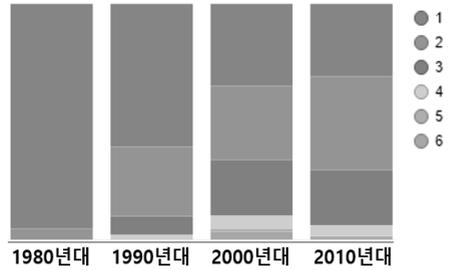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는 각각 11%, 19%에 불과하

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저자 1인당 평균 발표논문 수를 산출해보면 각각 1.25편, 1.3편인데,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는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저자 수별 연구논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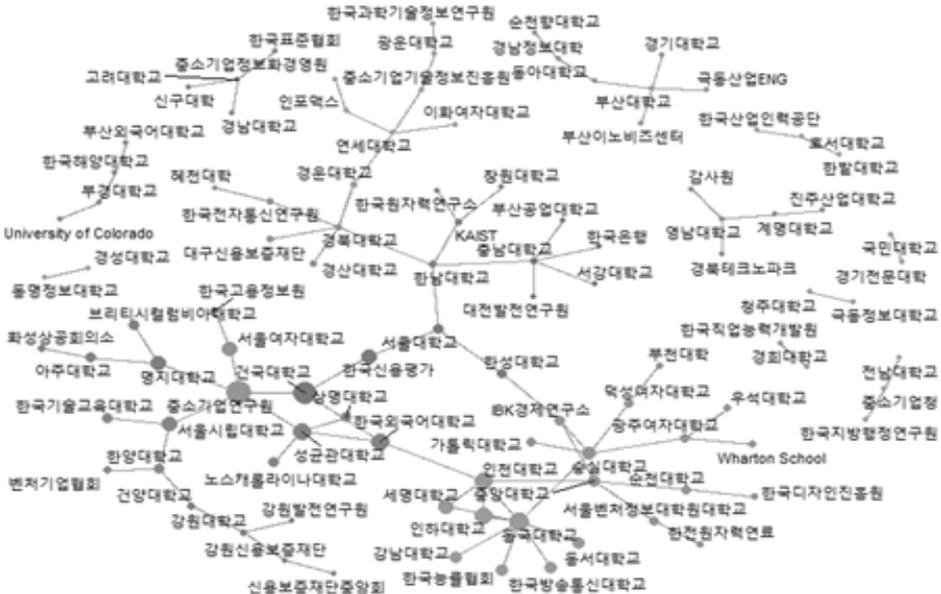
저자 수	연구 분야	
	중소벤처기업 정책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1명	73편(51%)	55편(49%)
2명	38편(26%)	35편(31%)
3명	26편(18%)	15편(13%)
4명 이상	7편(5%)	7편(6%)
합계	144편	112편

〈표 11〉에는 저자 수별로 연구논문을 분류하였다. 단독저자 논문이 약 50%정도 수준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총 저자 수가 3인 이상인 논문도 각각 33편, 22편



〈그림 6〉 시기별 논문 저자 수 변화

으로 작지 않은 비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논문 저자 수의 시기별 변화 추세는 〈그림 6〉과 같다. 198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연구가 단독으로 수행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로 단독저자 논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인 이상 논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해 대부분의 연구가 공동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7〉은 2인 이상의 공저자 연구논문들의 저자 소속을 기준으로 연구기관 네트워크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7〉 연구기관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중소기업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연구”의 1979년 4월 창간호부터 2019년 제41권, 제3호까지에 게재된 1,056편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자 등을 기준으로 시기별,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연구”가 걸어온 지난 40년간의 학술적 업적을 평가해보고, 더불어 향후 중소기업의 정책 및 전략적 경영 연구방향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은 중소벤처기업정책 부문 144편,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부문 112편으로 총 256편이었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별로 중소벤처기업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고 있는 반면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을 주제로 한 연구는 비울적인 측면에서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연구주제를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정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 제안 성격의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그 뒤를 이어 자금 및 창업·벤처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부문에서는 국제화와 중소기업의 전략적 경영 전반에 걸친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셋째,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1980년대에까지는 질적연구가 양적연구에 비해 더 큰 비중을 보였으나, 1990년대 이후 양적연구

를 채택한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해 2000년대 이후로도 질적연구보다 양적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넷째, 지난 40년 간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연구논문 중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을 주제로 한 연구 논문을 가장 활발히 발표한 기관은 한양대학교, 경북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이었으며 연구소의 연구 참여는 다소 미흡했다. 또한 1980년대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단독으로 수행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공동연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주요 시사점 및 “중소기업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 측면에서 정책 연구와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관련 연구 간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병헌·김영배(1999)는 중소기업의 진화 패턴을 고려할 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기업의 전략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중소벤처기업에 있어 국가의 정책과 기업이 선택하는 전략 간에 연관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40년 간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부문에서 연구된 주제들을 분석한 결과 각 부문별로 수행된 연구 주제는 다소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 관련 분야는 정책과 학술연구 간의 연계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관련 연구와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관련 연구 간 연구주제의 연계성이 제고된다면 연구결과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 및 기여도 측면에서 시너지가 강화될 것이다.

둘째, 연구방법 측면에서 보다 다양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분석 결과, 중소벤처기업 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부분의 연구논문 중 95% 이상이 전통적인 설문조사, 사례분석, 문헌연구 등을 통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으로 인하여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연구방법론의 융합 등을 통한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 관련 연구에 있어서도 연구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연구소의 학회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내에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연구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는 대학에 비해 연구소의 연구 참여도가 비교적 저조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 연구에 있어 민간 및 공공 연구소는 대학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주제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중소벤처기업 관련 연구소의 학회 참여도 제고가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상은 “중소기업연구”에 게재된 연구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관련 연구 흐름에 있어 국내 연구 동향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정책 및 중소벤처기업의 전략적 경영 부분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주제, 연구방법, 저자 등을 기준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았으나, 각 연구주제별로 세부적인 연구 흐름까지 살펴보진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각 연구주제별 국

내 연구의 동향 및 주요 결과 등을 정리해봄으로써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중소기업학회는 지난 40년 간 중소기업의 이론과 실체에 관련한 연구와 학술 활동 및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며, 국내 중소벤처기업 연구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세계적인 학술협회로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

논문접수일: 2020년 06월 09일

논문수정일: 2020년 08월 15일

게재확정일: 2020년 08월 27일

참 고 문 헌

- 권기석 · 정서화 · 이찬구(2018), “과학기술 정책 연구와 사회, 정부: 과학기술의 사회이슈, 정부정책, 학술연구의 공진화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제21권, 제1호, pp. 64-91.
- 김병윤 · 정철우 · 김길선(2011), “미국에서의 기술경영 논의와 진화: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 제19권, 2호, pp. 129-152.
- 박기석(2014), “중소기업전략유형과 조직문화, 경영성과간의 관련성,” 『경영교육연구』, 제29권, 제5호, pp. 320-339.
- 박준경(1994), “산업구조의 장기변화와 중소기업의 발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오철호(2012), “중소기업 정책 50년사와 중소기업 정책의 미래,” 『한국정책학회』
- 오철호 · 신일 · 이민창(2012), “정책 생태계와 새로운 중소기업 거버넌스의 모

- 색: 하나의 가설,” 『한국정책학회 동계 학술발표논문집』, pp. 605-619.
- 용세중(1999), “중소기업연구 20년의 성과와 평가,” 『중소기업연구』, 제21권, 제1호, pp. 335-390.
- 이병헌·김영배(1999),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전략변화와 기술능력 학습: 탐색적 사례 연구,” 『전략경영연구』, 제2권, 제2호, pp. 1-23.
- 이병헌·김영배(2000), “전략군 구조의 변화와 기업 성과: 우리나라 전자부품산업 1990-1995,” 『인사·조직연구』, 제8권, 제1호, pp. 1-50.
- 이병헌·장지호(2006),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고찰: 기술혁신 관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1호, pp. 107-139.
- 이병헌·박상문·손병호(2009), “국내 중소기업의 전략유형과 특성: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제22권, 제1호, pp. 391-415.
- 이용희·홍광표·박수홍(2015), “국내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벤처창업연구』, 제10권, 6호, pp. 15-26.
- 이윤보·노화봉(2006), “한국·미국·일본의 중소기업정책 비교,” 『중소기업연구』, 제28권, 제3호, pp. 329-379.
- 이의영(2003), “중소기업정책의 수요변화와 행정대응방안,” 『중소기업청 정책용보고서』
- 이재현·고승희(2009), “중소기업 지원실태와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7호, pp. 333-341.
- 이중수(2008), “우리나라 역대 행정부의 정책체제의 특징에 관한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제23권, pp. 77-103.
- 장지호(2009), “중소기업정책의 제도정합성 고찰: 시차이론을 활용한 담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 제3호, pp. 191-214
- 정민지·양희순·정재은(2014), “한국 중소기업의 국제화 연구동향 분석: 1993년부터 2013년까지 KCI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39권, 제3호, pp. 145-183.
- 정효정(2018), “학술연구의 동향 및 정책과의 상호관계 분석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을 중심으로,” 『기술경영경제학회』, 제26권, 제4호, pp. 146-172.
- 황일청(1979),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업적평가-연구방향제시의 한 시도,” 『중소기업연구』, 제1권, pp. 92-119.
- 허문구(1990), “전략군 연구의 비판적 고찰,” 『경영학연구』, 제20권, 제1호, pp. 259-314.
- Bantel, K. A.(1998), “Technology-based, adolescent firm configurations: strategy identification, context, and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3, No.3, pp. 205-230.
- Birley, S. and P. Westhead(1990), “Growth and performance contrasts between types of small firm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11, No.7, pp. 535-557.
- Gartner, W. B., T. R. Mitchell, and K. H. Vesper(1989), “A taxonomy of new business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4, No.3, pp. 169-186.
- McDougall, P. and Jr, R. B. Robinson(1990),

- “New venture strategies: An empirical identification of eight archetypes of competitive strategies for ent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11, No.6, pp. 447-467.
- Pavitt, K.(1988), “The size and structure of British technological activities : What we know and do not know”, *Scientometrics*, Vol.14, No.3-4, pp. 329-346.
- Porter, M. E.(1980), *Competitive Strategy*, NY: Free Press.
- Rothwell, R.(1988), “Small firms, innovation and industrial change”, *Small Business Economics*, Vol.1, No.1, pp. 54-64.
- Miles, R. C. and C. C, Snow(1978), *Organizational Strategy, Structure, and Process*, New York: McGraw-Hill.
- Miller, D. and P. H. Friesen(1983), “Strategy Marketin and Environment: The Third Link”,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4, No. 3, pp. 221-235.
- Werner, S(2002), “Rec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management research: A review of 20 top management journals”, *Journal of Management*, Vol.28, No.3, pp. 277-305.
- Westhead, P.(1990), “A typology of new manufacturing firm founders in Wales: Performance measures and public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5, No.2, pp. 103-122.

